

THE  
HOLY  
BIBLE,  
Conteinyng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Newly Translated out of the Originall  
tongues: & with the former Translations  
diligently compared and reuised by his  
Majesties speciall Comandment.  
Appointed to be read in Churches.  
Imprinted at London by Robert  
Barker, Printer to the Kings  
most Excellent Majesty.  
ANNO DOM. 1611.

#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정동수·웨이트·리건 지음



#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많은 이들이 왜 성경 신자들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성경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주제들에 관해 논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명쾌하고 단순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이 말씀에서 지계표(landmark)란 측량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통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을 뜻한다. 지계표 즉 랜드마크는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대형 건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하기도 하며 항해자를 위해 사용되는 육상 경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측량에서 랜드마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마음대로 랜드마크를 치우거나 변경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불법이다.

기독교는 그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가지 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전서(The Holy Bible)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초가 성경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이 랜드마크가 확실한지 혹은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늘 신경 써야 한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며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수용해 온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이것들에서 번역된 역본들만을 사용해 왔다. 이런 본문은 과거의 거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였기에 보통 수용 본문(Received Text)이라 불리기도 하며 또 공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의 공인(共認) 본문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성경 신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을 모았는데 이것들의 99%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처럼 절대다수를 이루는 다수 사본들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되었다.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제임스 1세)은 햄튼 코트 회의에서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 기존 성경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통 사람들의 손에 공통 성경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 결과로 1611년 5월 2일에 태어난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제임스 왕은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히브리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도 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 온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과 거기에서 이미 번역된 여러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들이 만들어 낸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반포된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며 가장 널리 보급된 보편적 성경이 되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전에도 공인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된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이 존재하였고 또 성경 출간 빈도도 높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후로는 그밖에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 자체가 모두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성경은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라는 확신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광고나 홍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온 세상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며 뻗어 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대양 육대주를 복음화시켰으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의 근간이 되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했던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통슨대역 한영성경, 기독교지혜사, 부록 1, 4쪽, 1989).

사실 현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성경 전쟁의 실체는 다수 본문만을 수용해 온 기독교와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온 천주교의 대립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대적자 마귀가 있다면 마귀는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서고 쓰러짐은 성경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보존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늘 존재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로 신약성경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면서 그에 비례해 말씀을 변개시키려는 마귀의 시도 또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마귀의 공략은 주로 역사 속에서 천주교회로 알려진 바빌론 음녀 교회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사도 시대 이후로 마귀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의 부패한 서기관들을 이용하여 행위 구원과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는 천주교 교리에 적합하도록 부단히 성경 본문을 변개시켜 왔다. 주후 500년경부터 약 천 년 동안 왕권마저 능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승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그가 공인 본문을 근거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힘입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교황의 천주교를 초토화시켰다. 1534년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 천주교를 몰아내고 영국 국교회를 국가의 종교로 세움에 따라 천주교는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1588년에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천주교 국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 의해 대패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 영국은 온 세상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면 천주교의 무지와 미신과 맹신이 다 드러나므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을 금서(禁書)로 만들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라스무스, 틴테일,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들려주셨다.

특별히 성경은 1450년경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에 순응하며 목숨을 내걸고 일을 수행한 신실한 성도들 노력의 금자탑이요 결정체가 바로 1611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종교개혁에 이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 올리베땅의 프랑스어 성경, 레이나/발레라의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등이 유럽 대부분 국가의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천주교 안에 팽배한 미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의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이에 천주교회는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1540년에 로올라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Jesuit)를 형성하여 반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지난 500년 동안 예수회는 유럽에서 ‘예수 없는 예수회’라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심지어 세속 역사가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다. 또한 천주교회는 성경 본문에 관하여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는 도구를 개발하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여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에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잘 알다시피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써서 사본들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필사된 사본들을 만드는 작업에는 필사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실수가 나올 수 있었다. 본문을 확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현존하는 사본들을 살펴보고 그런 사본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한 뒤 잘못 표기된 단어나 첨가 혹은 삭제된 단어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 정확한 독본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에라스무스나 베자 혹은 스테파누스와 엘제비어 형제들 같은 이들은 선한 의도로 다수 사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이런 작업을 수행하여 천주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1,500년 동안 공통적으로 수용한 공인 본문을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사본들을 비교하여 정확한 본문을 만드는 기초 작업은 선한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본문 확정 작업이 직업주의에 오염된 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이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본문 비평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 속에서 소실된 성경 본문을 자기들의 힘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본문 비평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본문을 섭리로써 보존해 주심을 믿지 않으며,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간들의 창작물에 불과한 다른 고대 문학 작품을 비평하듯이 성경 본문을 비평하려 한다. 다음은 한국의 유명 본문 비평 학자의 말이다.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는 성서를 이상화하지 않는다. 성서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텍스트이다. 성서는 가지고 다니면서 받들어 모셔야 할 책이 아니라, 읽고, 명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책이다(「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기독교서회, 민경식 지음, 176쪽).

성경 신자들의 눈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불신자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한다. 현재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본문 비평은 실은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도구로서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안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천주교회의 본문 비평에는 내재된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곧 후대 사본들에는 필사자들의 실수가 축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래된 사본일수록 성경의 원문에 가깝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본문 비평가들은 후대의 사본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수가 훨씬 적은 오래된 사본에 더 많은 신뢰와 권위를 준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 보존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산동방 정교회 수도원에 보존된 '시내 사본'이다. 이것들은 주후 4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초기 교회들이 천주교회의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같은 소수 사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인 본문 사본만을 사용하였고 그 사본이 많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조심스레 그것을 필사하고 불태워버렸다. 이런 이유로 초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오래된 사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워낙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본들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런 계통의 사본들은 현존하는 사본들의 99%를 차지할

정도이며 유럽과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등의 기독교가 전파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반면에 다음모자 콘스탄틴 황제의 꼭두각시였던 유세비우스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등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바티칸 도서관과 시내 수도원에 고이 간직되어 왔다. 또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값싼 파피루스에 대부분의 사본들을 필사하였기에 이것들을 오래 보존하기 어려웠으나 바티칸 사본 등은 벨럼이라는 가죽에 필사되어 장기간 보존될 수 있었다. 개역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의 각주에는 종종 “더 좋은 사본 혹은 더 신뢰할 만한 사본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더 좋은 사본’, ‘더 신뢰할 만한 사본’, ‘더 오래된 사본’은 한결같이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을 가리킨다.

학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학교로 들어온 본문 비평은 19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고,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A. Hort) 박사에 의해 널리 파급되었다. 이들은 천주교 사상과 이교주의, 그리고 독일의 이성주의에 물든 자들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찬양하고 마리아 숭배를 옹호하며 유령 길드 같은 심령술 단체를 만들어 자유주의 이교도 신학을 전파하였다. 이들은 쉴라이어(J. H. Thayer)와 스미스(V. Smith) 같은 유니테리언 이단들과 함께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를 조직한 뒤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교묘하게 비평하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론으로 수정 본문을 만들고 여기에 근거하여 1881년에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SV)을 출간하였다. 이들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근거로 공인 본문을 개정하여 만든 부패한 본문은 보통 ‘비평 본문’ 혹은 ‘수정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개역성경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그것의 미국 판인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역시 1901년에 출간되었으나 성도들에게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한국의 개역성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이 신학문으로 추앙받던 시기에 부패한 ASV를 주요 원천으로 해서 번역되었기에 이런 불신 학자들의 잘못된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최근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성경들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비록 ESV, ASV 등이 실패하였지만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뿌려놓은 성경 의심 사상은 그 이후로 신학문이라는 미명하에 즐기차게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들로 파고들어가 지금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학교가 천주교회가 만든 ‘비평 본문’을 성경 원어 강좌의 본문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학교나 학계에서 설 곳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원어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천주교의 소수 본문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의 이러한 거센 공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이 지배하는 영어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전서'(The Holy Bible)로 자리를 굳혀 왔다. 이에 마귀는 본문 비평과 학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경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이 세상 미디어를 지배하는 언론 재벌 머독(R. Murdoch)이 소유한 존더벤(Zondervan)이라는 출판사를 이용하여 1970년경부터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이라는 사역(私譯) 성경을 만들어 냈다. 머독은 하퍼 콜린스라는 세속 출판사를 운영하며 '사탄경'(Satanic Bible)을 출간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마스 넬슨 출판사를 매수하여 뉴킹제임스 역본(NKJV)을 출간하고 있다(이름에는 킹제임스가 들어가지만 이것 역시 부패된 성경임). 그는 상업적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제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많은 광고와 함께 대규모 신학교의 교수들을 집필진으로 활용해 NIV를 홍보하면서 성경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은 현대 역본들이 미국 성경 시장의 50% 정도를 잠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교회는 배도의 길을 걸을 것이고 마귀가 장악한 천주교회는 계속 득세하여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므로 부패된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계속해서 낚아챌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배도하는 때에 천주교와 또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 역본들의 세력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므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말세에는 천주교가 주도하는 이런 대규모 배도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성경을 변개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구원을 흐트러지게 하며 재림과 휴거와 천국의 소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도 성경 신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 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영국과 조금 상황이 다르다. 미국/영국은 약 400년 동안 완전한 성경이 독주하다가 19세기 말부터 마귀의 현대 역본들이 출간되면서 야금야금 그 세력을 갉아먹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처음부터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이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겨우 몇 년 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어 이제 막 성경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는 성경만을 믿음과 실행의 절대적 근거로 삼으려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성도들이 성경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개역성경이 가져다준 '한국적 기독교'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한 '성경적 기독교'가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바른 성경을 한국의 성도들에게 알려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지 몇 가지 이유를 기술하고자 한다.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민23:19)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 무어라고 하셨는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확실히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성경 변경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주셨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처럼 성경 변경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날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만국 공통어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현대 역본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를 옹호하는 목사들과 학자들은 엄중한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완전한 성경이 적어도 한 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비교해 보기 바란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일단 개역성경(개역개정)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신약성경에서만 적어도 13구절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를 '없음'으로 표기해 놓았다(이 책자의



뒤표지 참조). 정직한 독자라면 ‘없음’이 없는 성경과 ‘없음’이 있는 성경들을 비교한 뒤 그것들이 다 같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몇 구절이 빠지거나 단어가 삭제되거나 첨가되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분석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그들의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금세 알 수 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교리의 변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할 수 있는 분이신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분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무에서 유로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죽어 땅속에 묻혀 썩어서 몸의 모든 원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 몸의 원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나 창조보다는 말씀 보존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닌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편견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검증하면 할수록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모든 단어를 담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역본들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린이이라도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평생을 연구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단 몇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성경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사실이 완전한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현대 역본들은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이권을 가진 자들을 편집위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신학과 배경에 맞게, 또한 출판업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번역하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뜻이 아니라 집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번역이 최종 산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행’(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며 성도들이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갈5:19; 엡5:3 등). 그런데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부도덕’(immorality)으로 바꾸어 버렸다. 부도덕과 음행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애 하는 자들을 ‘sodomites’ 즉 소돔 성에서 동성애 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NKJV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비뒤틀어진 자들’(perverted persons)로 애매모호하게 바꾸어 버렸다(왕상14:24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번역하면 동성애나 음행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 시대에서는 활발한

성경 판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바꾸어 버렸다. NIV의 편집자 중 하나인 폴렌코트 박사는 자신이 여성 동성애자임을 온 세상에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성들끼리 혹은 남성들끼리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번역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신학을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다. 더욱이 번역하는 내용을 번역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수십 번 일일이 검토하였으므로 사적인 번역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제임스 왕 자신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종종 번역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본인들의 특정 신학이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단지 연약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을 뿐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 전인 156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추종자들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만들었다. 제네바 성경 역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지만 칼빈의 신정정치 개념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결국 사적인 성경이 되고 말았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1590년경부터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가져간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빈주의라는 비성경적인 사적 해석이 들어간 제네바 성경에 복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킹제임스 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헌법과 정신세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교리적 편견 없이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임을 역사가 보여 준다.

제임스 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초대 영국의 왕이 된 사람이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치적이 많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을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 주었고,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사람들에게 의해 많이 이름이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야고보는 야콥을 나타내는데 이 야콥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경'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 3.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이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컴퓨터 시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는 현대 역본들 안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판이 바뀌곤 한다.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등 현대 역본들이 모두 다 이런 같은 과정을 겪었고 개역성경도 수십 차례의 변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도 나오자마자 수차례 판이 바뀌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철자법 변화를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거친 세파를 이겨내며 지금까지 완전한 본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성경이 역사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있었던 말인가?

#### 4.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을 반대한다.

영어권에서는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 수백 종류의 역본들이 있다. 이런 역본들은 늘 “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는 광고와 함께 출간된다. 어떤 현대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하는 것이 그런 역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그 역본들이 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사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 성경 전쟁을 관망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NASB를, 킹제임스 성경의 냄새가 나는 성경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NKJV를, 젊은이들에게는 NIV를, 아이들에게는 리빙 바이블을, 성경을 소설처럼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의역성경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Amplified Bible)을 던져 주고 있다. 이들이 무슨 성경을 보든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현대 역본이기만 하면, 마귀나 교황이나 천주교에게는 모두가 남는 장사이다. 번역의 형식과 표현, 겉표지가 다를 뿐 내용은 다 같기 때문이다.

#### 5.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이룬 정직한 성경이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상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을 사상 영감이라고 말하며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은 성경 보존이란 사실 사상의 보존이며 따라서 번역은 사상만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번역 기법은 니다(Eugene Nida)에 의해 파급된 의역이다. 이들은 대충 뜻만 알아듣게 전달하면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리빙 바이블과 메시지이다. 또한 NIV도 절반은 의역이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그리스어 원문은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는 ‘1년 치 봉급’이라고 했다. 이들은 NIV의 이런 의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 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NIV의 번역이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는 ‘1년 치 봉급’이 아니라 ‘300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들 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300 데나리온’이라고 번역한 뒤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무작정 쉽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 을 담은 책이다. 그러므로 그런 단어들 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상들이 아닌 단어들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하여 번역되었고, 수용 언어인 영어가 허락하는 한 원어의 단어와 영어의 단어가 서로 일치되며 문장의 형태까지도 일치되도록 번역되어 원문의 형식까지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다.

원어에서 수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부가적인 단어들이 불가피하게 첨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문서를 번역해 보면 누구라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번역을 위해 자기들이 첨가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독자들은 어떤 것이 원어 성경에 있던 단어이며 어떤 것이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라 번역되었으므로 독자는 원어 성경이 없어도 원어와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며 축자적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읽고, 그것들을 원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현대 역본들은 첨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구분하지 않았고 많은 경우 의역되었으므로 독자들은 이런 역본의 단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지 확인할 수 없다.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은 이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단지 어감이나 읽힘성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구절을 짧게 축약하고 의역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바른 신학이 없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우리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직역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존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 6.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없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온갖 꾀를 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왔을 때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로서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의 출생 이후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 실패하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자 계락을 바꾸어 신약성경에서 그분의 신격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마귀가 가장 크게 변개시킨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그 결과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예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다음 표는 현대 역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약화시킨 몇 사례를 보여 준다. 이 표가 보여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몇 구절만 비교해 보면 어린이이라도 쉽게 현대 역본들의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이 현대 역본들에서 약화되는 이유는 그것들의 모체인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들이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경에 큰 복을 주셨다.

〈현대 역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약화〉

KJB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주 예수 그리스도	행15:11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행16:31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행19:4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롬1:3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5:4-5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16:22	주
주 예수	고후4:10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후11:31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엡3:14-15	삭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살전3:11	예수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8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12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요이3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누가 완전한 성경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이 성경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드넓은 우주에서 갈 곳을 모른 채 홀로 떠도는 별똥별과 같고 망망대해를 나침반과 지도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그스던 박사의 회개의 고백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는 NASB를 만든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의 회개의 고백을 소개하려 한다. 로그스던 박사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2년간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요, 성경학자였다. 그는 자기 친구인 사업가 록크맨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1901년 판 ASV를 살려

NASB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여러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번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번역이 완성된 뒤 직접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가 만든 작품인 NASB가 실제로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임을 늦게나마 깨닫고 NASB와 관련된 자기의 행적을 회개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였다.<sup>1)</sup>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신미국표준역(NASB)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부터 손을 떼려 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잘못된 성경의 기초를 놓았다. 사실 나는 이 역본의 형식을 결정했고, 번역자들 중 몇몇과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앉아 일했고 서문을 썼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역본이 발간된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을 비웃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나는 NASB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질문과 비평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반박할 수도 없다. NASB 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참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았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이같이 변경시킨 일에 사탄의 속임수와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해 봐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 나는 곧바로 NASB를 출간한 록크맨 재단의 설립자이자 내 절친한 친구인 록크맨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NASB와 관련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NASB는 참으로 내게 큰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큰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나는 NASB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으나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채 굳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 사실 심히 변경된 그 본문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 이제 나는 무디 성경 학교의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제 독자께서는 권위역본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라고

---

1) <http://www.youtube.com/watch?v=wZBeIr1wKGY>, 참고로 우리말 개역성경은 로그스던 박사가 개정한 ASV를 번역의 주요 원천으로 사용하였다.

말해도 된다.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야만 한다.

NKJV를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영지주의 이단인 오리겐이 편집한 ‘부패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계22:18-19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변경하였다. 계시록은 말세 교회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 주는데 이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이고 음탕한 교회이다(계3:14-22). 궁극적으로 이 배도한 교회는 유혹을 받아 속아 넘어가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저 음녀, 즉 자주색 옷을 입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채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체제와 하나로 엮이게 된다. 이런 혼합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말씀을 천주교회의 부패한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을 보여 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수많은 이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천주교회의 일원인 히틀러가 천주교회를 심히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국과 천주교회를 연합시키려 하였고 이 일을 쉽게 이루려고 멀리 주교(Bishop Ludwig Muller)를 시켜 죄나 은혜 같은 단어들을 제거한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하였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히틀러와 함께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만 가르쳐 주었다. 성경 변경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브에게 물으면서(창3:1) 의심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살짝 의심을 불어넣은 뒤 그는 새로운 계시를 담아, 먹기에 좋게 보이는 말들을 도입하여 사람을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이런 유형의 마귀의 계략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귀는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근거로 번역했다는 새로운 역본들을 수백 개나 만들어 여전히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단언하건대 새로운 계시는 없다.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지난 400년간 자신의 모든 말씀들(words)을 보존하셨다.

- NASB 편집위원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주교회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게 세워 놓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저 랜드마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랜드마크를 물려줄 것이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이 글에서는 웨이트(D.A. Waite)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며」(*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와 리플링거(G. Riplinger)의 「현대 성서와 뉴에이지」(*New Age Bible Versions*) 및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의 네 가지 면에서 최근에 나온 현대 역본들보다 우수하다.

- (1) 본문(Original Language Texts)
- (2) 번역자(Translators)
- (3) 번역 기법(Translation Technique)
- (4) 신학(Theology)

한 가지씩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앞서 위의 네 가지를 다음의 성경 구절과 비교하면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3:9-11).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성경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의 요소들과 비교될 수 있다.

- (1) 주건축자(Master builder): 사도 바울 등과 같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원본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
- (2) 다른 사람들(Builders): 원본을 이용하여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
- (3)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가?(How to build): 번역의 방법 및 기술
- (4) 건물을 무엇으로 세우는가?(How to build): 번역의 재료 즉 신학

하나님의 건물의 기초나 성경의 기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번역된 성경의 질이나 그 우수성은 위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심지어 그 안의 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질이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우수성

### 〈1.1〉 KJB의 구약 본문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롬3:1-2).

이 성경 말씀이 보여 주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고 이들 중에서 성경을 맡아 직접 손으로 복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성경기록관, Scribe)이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자연히 서기관들이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과 함께 큰 권세를 지닌 그룹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사 과정을 통해 성경 본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런 필사본에 근거한 본문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보존을 위해 선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1960년, 밀러(H.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 줄에서 60 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따라서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 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어느 정도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었으며 따라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럼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 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Text)이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후 10세기경에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전 4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말로서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사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이며 현재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소라'라는 말은 명사로 쓰일 때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을 보존해 온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 'WAITER'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주고 단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י'는 '아'(ah)라는

발음을 갖고,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렉션스’(matres lectiones)라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ATER’와 ‘WATER’는 이런 기호들에 의해 구분이 된다. 그런데 마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다 모음 부호를 달아준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매우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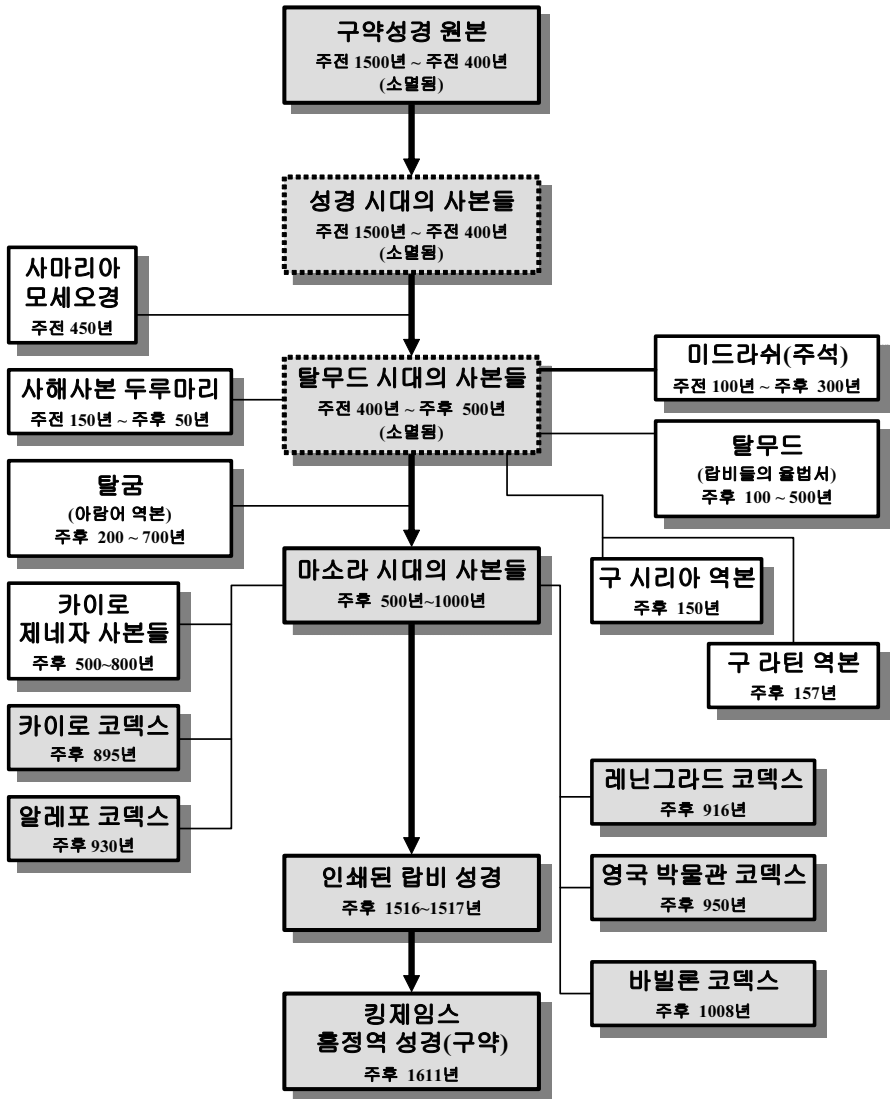
이들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 〈1.2〉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구약 본문

신미국표준역(NASB)의 서문에는 번역자들이 키텔(Rudolph Kittel)의 Biblia Hebraica 최신판과 최근의 어휘 사전, 히브리어와 동일한 기원을 지닌 다른 나라의 말들, 그리고 사해사본 등에 기초해서 NASB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NASB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하여 번역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키텔의 1937년 판 Biblia Hebraica에는 페이지마다 각주에 15~2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으므로 구약성경 전체에 최소한 20,000~30,00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생각하면 과연 이것을 보존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국제역(NIV) 역시 키텔의 Biblia Hebraica와 사해사본, 사마리아 모세 오경, 본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 고대 성경 기록관들의 전통, 본문 여백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본문들, 70인역,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등을 사용하여 구약 본문을 만들었다고 그 서문에 기록하고 있다.

한편 뉴킹제임스역(NKJV)은 그 서문에서 번역자들이 1967/1977년 판 Stuttgart Edition of Biblia Hebraica를 사용했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들어진 본문이므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고 불리며 내용 면에서는 키텔의 Biblia Hebraica와 거의 비슷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키텔의 본문은 Biblia Hebraica Kittel 즉 BHK라고 부르며, NKJV가 사용한 본문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즉 BHS라고 부른다. 이 BHS 역시 BHK처럼 페이지마다 각주에 수정 사항이 들어 있고 구약성경 전체적으로는 20,000~30,00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 NKJV의 역자들은 자신들이 종종 KJB의 근간이 된 1525년 판 뵘베르그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였으며, 70인역,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사해사본 등을 참고하고 그것들과도 비교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NKJV 역시 ‘전통 마소라 본문’ 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성경〉

### 〈1.3〉 마소라 사본이라면 다 같은가?

새로 출간되는 성경들에 대한 광고를 보면 NIV, NASB의 역자들도 자신들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구약성경을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순진한 독자들은 이들도 KJB의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믿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소라 본문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KJB의 '마소라 본문'과 NIV, NASB 등 현대 역본의 '마소라 본문'이 매우 다르다. 이들이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시켜 KJB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KJB의 히브리어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516-1517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출간한 구약성경을 「다니엘 뵘베르그판」(Daniel Bomberg Edition)이라 부르며 또한 이를 「제1 랍비 성경」(*The Firs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후에 1524-1525년에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벤 카임(Jacob Ben Chayyim)이 이를 편집하였다 해서 이 본문을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라 하며 이 본문은 「제2 대(大) 랍비 성경」(*The Second Grea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후 400여 년이 지나도록 표준 마소라 본문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KJB 역자들은 바로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다.

한편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주입시킨 키텔은, 1937년 자기가 편집한 마소라 성경인 BHK 제3판에서 KJB의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으로 바꾸어 버렸다. 사실 1906년과 1912년에 키텔이 출간한 제1판과 제2판에서는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사용되었는데 1937년에 출간한 제3판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한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으로 갑자기 구약성경의 출처가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키텔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20,000~30,000 군데의 변개를 시도하였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주후 100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KJB의 기초가 된 '전통 마소라 본문'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그 이후 1967년과 1977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키텔의 BHK를 개정한 BHS가 출간되었는데 이 마소라 성경 역시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한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KJB를 제외한 NASB, NIV, 신개역표준역(NRSV), NKJV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구약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한 마소라 본문이 유대인들의 '전통 마소라 본문'인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증오한 루돌프 키텔의 BHK와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지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BHS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학 대학에서 성경 본문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성경의 경우 어떤 본문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으신 성경 말씀이 비록 자필 원본이 아니고 필사본이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되나’(it is written)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말씀’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이 보존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은 것임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 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란다(마5:17-18; 눅24:27; 눅24:44 등).

#### 〈1.4〉 KJB의 신약 본문

흠정역 신약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다. 공인 본문은 누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누구나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 Received Text)이며 따라서 이것을 수용 본문(收容本文)이라고도 부른다.

공인 본문은 KJB 신약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1598년에 출간된 베자의 제5판이 사용되었다. 공인 본문의 특징은 우선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방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며,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본문’이라고도 한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상당수의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조합되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베자(Theodore Beza),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와 엘제비어 혹은 엘지버 형제(Elzevir Brothers), 아브라함과 보나벤퉈(Abraham and Bonaventure)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다섯 판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다. 1516년의 제1판에 이어, 1519년에는 마르틴 루터가 그의 역사적이고 매우 중요한 독일어 번역판에 사용했던 제2판이 나왔다. 그 뒤 그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판은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매우 훌륭했고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모범 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는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1년에 모두 네 판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다. 베자도 1565년, 1582년, 1588년, 그리고 1598년에 걸쳐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다.

KJB 역자들은 1598년의 베자 성경과 1550년과 1551년의 스테파누스 성경을 주요한 출전으로 사용했다. 1611년에 KJB가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엘제비어 형제가 1624년, 1633년, 그리고 1641년에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는데 이들은 에라스무스의 표준을 따랐던 베자의 판을 충실히 따라가며 본문을 편집했다. 한편 이들은 1633년에 출간된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서문에 지금까지의 본문들을 개선한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문구를 새겨 넣었는데, 그 문구는 라틴어로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이며, 그 뜻은 “사람들이 수용한 책으로부터 입수한 본문에 따르면…”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공인 본문 혹은 수용 본문(Received Text 혹은 Textus Receptus)이라는 명칭이 탄생하였다.

### 〈1.5〉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신약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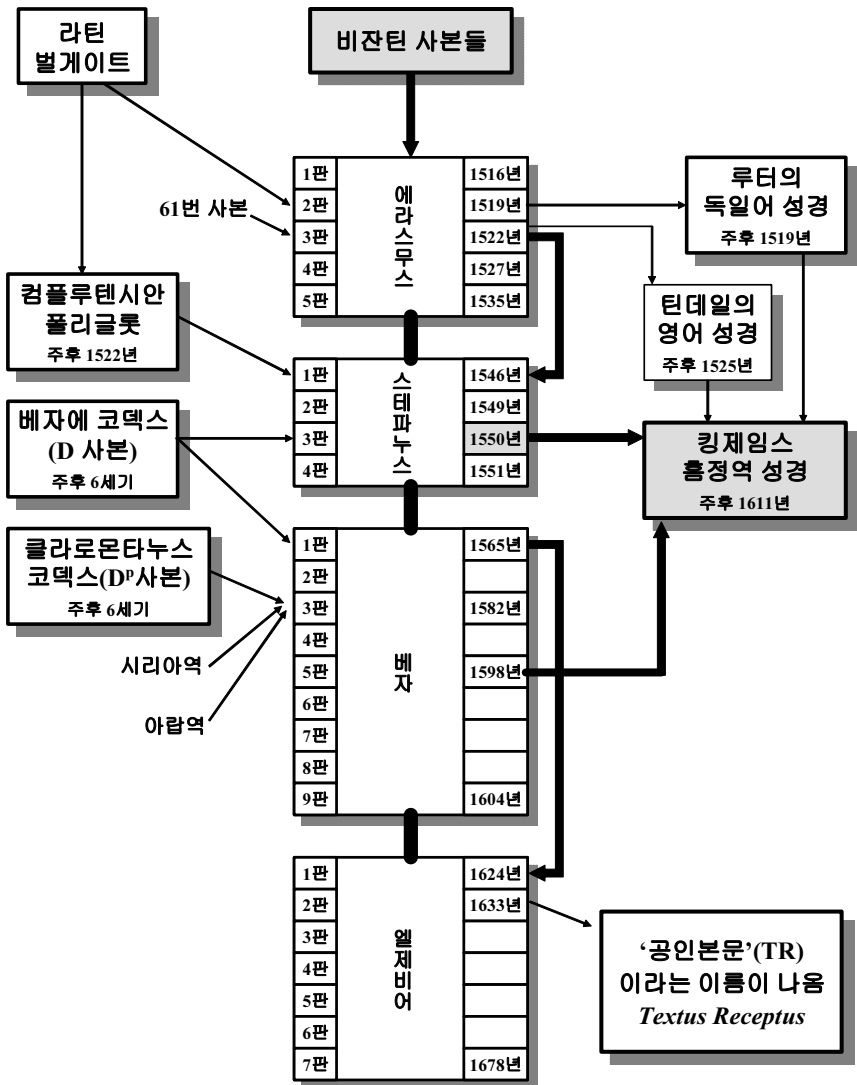
사도 시대부터 근 1900년 동안 신약 교회는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에는, 비록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60년 동안 다른 영어 성경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또한 KJB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보편적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한 성경’이라는 인식 하에 ‘권위역본’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을 느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도입하여 성경을 한낱 역사책처럼 취급함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으며, 이를 위해 허영에 들뜬 신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1881년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두 명의 학자들은 공인 본문에서 무려 5,604 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본문이라는 개략된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빼거나 번개시키거나 추가한 단어들은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를 차지하는 것이다.

웨스트코트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으며 호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다.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강신술 등에 심취한 영성주의자들이요, 지옥이나 마귀 등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창세기 기록을 신화로 생각한 인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번개시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수정 본문 비교〉

	공인 본문	수정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 군데 수정((1,952 군데 삭제, 467 군데 추가, 3,185 군데 번개))
총 페이지 수	647	9,970 단어 번개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 단어 번개
번개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번개
번개 분량	없음	총 46 페이지에 해당함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성경〉



1988년에 무어만 박사는 공인 본문의 단어와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네슬레/알란드 판(Nestle/Aland Edition)의 그리스어 본문의 단어 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 판의 본문이 공인 본문에 비해 무려 2,886 단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이 1,952 군데를 삭제한 데 비해 네슬레와 알란드의 본문은 그보다 934 단어를 더 삭제하였다. 이만큼 단어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전후서에 상당하는 분량이 없어지게 되므로 현대 역본을 읽게 되면 그만큼 짧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한편 이들은 단순히 단어만 변개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 자체를 변개시켜 뉴에이지 신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수학에서 평면이나 입체를 배울 때 두 개의 사물이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리를 이용한다.

주어진 어떤 것과 동일한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동일하다.

이 규칙을 성경 번역에 적용해 보면 NIV든 NASB든 그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공인 본문과 5,600 군데나 다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1900년 동안 보존해 온 공인 본문에 근거를 둔 KJB와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NIV나 NASB를 손에 들고 이것이 영어로 보존된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신약성경의 모든 책에서 200여 구절을 발췌하여 여러 역본의 순수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의 맨 오른쪽 열은 비교 대상인 200 구절 중에서 변개된 구절 수를 나타내는데 공인 본문에 기초한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빼고는 모든 현대 역본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sup>2)</sup>

### 〈1.6〉 역사적 증거들

공인 본문(TR)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본문이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이 증명한다.

#### A. 주후 33~100년 사이의 사도 교회 시대

- (1) 초기의 사도교회들이 다 TR을 사용했다.
- (2) 팔레스타인에 있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3) 안디옥의 시리아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B. 주후 100~312년 사이의 초대 교회 시대

- (4) 페시타 역본이 TR을 사용했다.
- (5) 파피루스 66번이 TR을 사용했다.
- (6) 북이탈리아의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7) 남프랑스 골 지방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8) 영국의 켈트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2)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박사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을 참조하기 바람

〈신약성경 역본 비교: 200구절〉

	신약성경역본	변개/ 삭제
1	「한글개역성경」( <i>Korean Revised Version</i> )	177
2	「신영어역」( <i>New English Bible, NEB</i> )	197
3	「신국제역」( <i>New International Version, NIV</i> )	195
4	「개정표준역」( <i>Revised Standard Version, RSV</i> )	189
5	「버클리역」( <i>Berkeley Version</i> )	185
6	「위마우스역」( <i>Weymouth's in Modern Speech</i> )	184
7	「신미국표준역」( <i>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V</i> )	183
8	「현대인의 성경」( <i>Good News for Modern Man</i> )	182
9	「윌리엄스역」( <i>Williams' New Testament</i> )	180
10	「패닌역」( <i>Ivan Panin's Numeric New Testament</i> )	180
11	「굿스피드역」( <i>Goodspeed's American Translation</i> )	179
12	「모팻역」( <i>Moffatt's New Translation</i> )	175
13	「우에스트역」( <i>Wuest's N.T.</i> )	169
14	「증보역」( <i>Amplified New Testament</i> )	165
15	「20세기역」( <i>Twentieth Century N.T.</i> )	161
16	「필립스역」( <i>Phillip's New Testament</i> )	142
17	「다비역」( <i>Darby's Translation N.T.</i> )	138
18	「리빙바이블」( <i>Living Bible Paraphrased</i> )	130
19	「신조함역」( <i>New Confraternity N.T.</i> )	119
20	「놀리역」( <i>Norie's New Translation N.T.</i> )	62
21	「람사역」( <i>Lamsa's Eastern Text N.T.</i> )	49
22	「웨슬리역」( <i>John Wesley's Translation N.T.</i> )	43
23	「루터의 독일어 성경」( <i>Martin Luther's German N.T.</i> )	0
24	「영어 킹제임스성경」( <i>King James Version N.T.</i> )	0

(마1:25; 5:44; 6:13; 6:27; 6:33; 8:29; 9:13; 12:35; 12:47; 13:51; 15:8; 16:3; 16:20; 17:21; 18:11; 19:9; 19:17; 20:7; 20:16; 20:22; 21:44; 23:14; 25:13; 27:35; 28:2; 28:9; 막1:1; 1:14; 1:31; 2:17; 6:11; 6:16; 6:33; 7:8; 7:16; 9:24; 9:42; 9:44; 9:46; 9:49; 10:21; 10:24; 11:10; 11:26; 13:14; 13:33; 14:68; 15:28; 16:9-20; 눅1:28; 2:33; 2:43; 4:4; 4:8; 4:41; 6:48; 7:31; 9:54; 9:55; 9:56; 11:2-4; 11:29; 17:36; 21:4; 22:20; 22:31; 22:64; 23:17; 23:38; 23:42; 24:3; 24:6; 24:12; 24:49; 24:51; 요1:14; 1:27; 3:15; 4:42; 5:3; 5:4; 6:47; 6:69; 7:53; 8:16; 9:35; 11:41; 16:16; 17:12; 20:29; 행2:30; 7:30; 7:37; 8:37; 9:5,6; 10:6; 15:18; 16:31; 17:26; 20:25; 20:32; 23:9; 24:6-8; 24:15; 28:16; 28:29; 롬1:16; 1:29; 8:1; 9:28; 10:15; 10:17; 11:6; 13:9; 14:6; 14:21; 15:29; 16:24; 고전1:14; 5:7; 6:20; 7:5; 7:39; 10:28; 11:24; 15:47; 16:22; 16:23; 고후4:6; 4:10; 5:18; 11:31; 갈1:15; 3:1; 3:17; 4:7; 6:15; 6:17; 엡3:9; 3:15; 5:30; 6:1; 6:10; 빌3:16; 골1:2; 1:14; 1:28; 2:11; 3:6; 살전1:1; 2:19; 3:11; 3:13; 살후1:8; 딤후1:17; 2:7; 3:16; 4:12; 6:5; 딤후1:11; 4:1; 4:22; 딤후1:4; 몬1:6; 1:12; 히1:3; 2:7; 3:1; 7:21; 10:30; 10:34; 11:11; 약5:16; 벰전1:22; 4:1; 4:14; 5:10; 5:11; 벰후2:17; 3:9; 요일1:7; 2:7; 4:3; 4:9; 4:19; 5:7-8; 5:13; 유1:25; 계1:8; 1:11; 2:13; 5:14; 6:1; 8:13; 11:17; 12:12; 12:17; 14:5; 16:17; 20:9; 20:12; 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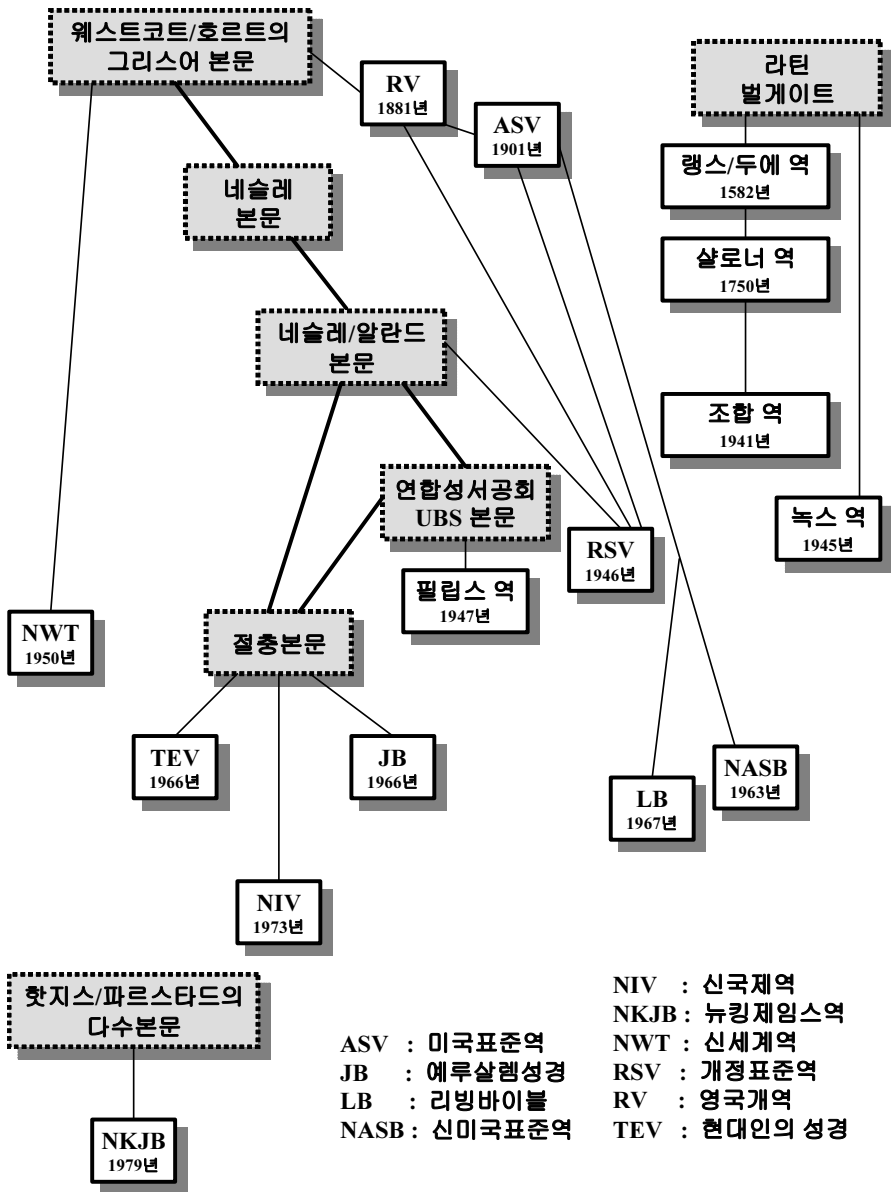
- (9)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0)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 이전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11)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C. 주후 312~1453년 사이의 비잔틴 시대

- (12) 4세기의 고딕역이 TR을 사용했다.
- (13) 4, 5세기의 ‘W 코덱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4) 5세기의 ‘A 코덱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5) 5,255 개의 사본 중 5,210 개의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6) 그리스 정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7) 현시대의 그리스 정교회 역시 오직 TR만을 사용한다.

D. 주후 1453~1831년 사이의 초기 현대 시대

- (18)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9)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0) 1522년의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 TR을 사용했다.
- (21)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2) 1525년의 틴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3) 1535년의 올리베땅의 프랑스어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4) 1535년의 키버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5) 1537년의 매튜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6) 1539년의 태버너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7) 1539~1541년의 그레이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8) 1546~1551년의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9) 1557~1560년의 제네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0) 1568년의 비숍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1) 1569년의 스페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2) 1598년의 베자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3) 1602년의 체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4) 1607년의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5)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6) 1624년의 엘제비어 형제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TR을 사용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과 현대 역본들〉

### 〈1.7〉 사본들의 증거

1967년도까지 존재한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본의 수는 모두 5,255 개이다. 이런 사본들에는 81 개의 파피루스 사본과 267 개의 대문자 사본, 2,764 개의 소문자 사본, 2,143 개의 기도문(혹은 교독문) 등이 있다. 다음의 표는 이런 사본들이 어떤 본문을 지지하는지 잘 보여 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하며 이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 준다.

〈사본들의 본문 지지도〉

사본 종류	개수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웨스트코트/호르트 및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파피루스	81	75(85%)	13(15%)
대문자 사본	267	258(97%)	9(3%)
소문자 사본	2,764	2,741(99%)	23(1%)
기도문 등	2,143	2,143(100%)	0(0%)
합계	5,255	5,210(99%)	45(1%)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는 공인 본문과는 달리 1898년에 처음 만들어진 네슬레 판은 1992년까지 무려 26번이나 판을 개정하여 평균 3.1년마다 새로운 판이 개정되어 나왔다. 이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뜯어고치려 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도한 무리들이다.

특히 알란드(Kurt Aland)는 배도한 독일인으로 독일의 뮌스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공인 본문을 믿지 않으며 네슬레/알란드 판 편집위원회의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의 90% 정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 그는 공인 본문과 일치하는 사본을 발견할 때면 무조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본이 과거의 어떤 사본을 베낀 형편없는 사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며 사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TR을 지지하는 사본들은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 그 개수에 상관없이 단 하나의 증거로만 사용하려 한다.

이들이 이 같은 철학을 수용한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후 250~350년 사이에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려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본들을 모두 없애고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엉뚱한

이론을 폈는데 알란드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같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헛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날조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 주의에 심취되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영성주의자들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은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에 근거를 둔, 즉 전체 사본 중 1%에 해당하는 사본에 근거를 둔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 2.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우수성

### (2.1) KJB 번역자들의 우수성

KJB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57명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문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 관료나 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개의 언어에 정통해야만 했다. 이들의 원어 실력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15, 16세기경 조선 왕조에서 출세를 하려면 한문 실력이 뛰어나야만 했는데 따라서 가문 있는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중국 고전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게 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국 고전을 읽어 술술 외는 사람과 성장한 뒤 대학에 가서 중국 고전을 공부한 20세기의 중국 고전 학자와 과연 누가 더 중국 고전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영어 성경 번역자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경과 그리스어 고전을 읽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읽고 술술 외우는 사람과 장성하여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현대 학자와 과연 누가 더 원어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0세기의 현대인들과는 달리 15, 16세기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오락이 그리스어 놀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현대 원어학자들을 KJB가 출간되던 시대의 학자들과 비교할 수 있던 말인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자그마치 그 당시 최고의 석학 57명이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다면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만 할 것인가?

KJB 번역자들이 기술한 「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The Translators To the Reader)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 이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리가 없는 경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 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2)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 창고로서 거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또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의 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거나 혹은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지는 만나 단지나 기름병이 아니며 누구나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양식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요, 더욱이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3) 이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만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껍질을 까서 열매를 먹는 것과 같고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를 보는 것과 같다.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길는 것과도 같은 작업이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물을 길 수 있는 두레박이 없는 우물가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4)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 또한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욕구를 자제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부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처럼 귀한 보물을 밟지 말라. 또한 개처럼 거룩한 것을 물어뜯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분께서 손을 내미사 당신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 〈2.2〉 NIV, NASB 등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열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책을 저술하는 작가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든,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든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이 구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번역에 임한 KJB의 역자들의 작품과 성경을 단지 하나의 고대 작품으로 혹은 신화 정도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번역한 NIV 등 현대 역본들 편집자들의 작품이 어떨지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제 현대 역본 편집자들과 이들에게 본문을 제공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상 및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자.

- 그리스어 신약성경 수정 본문의 저자인 호르트의 창세기관, 진화론관, 연옥관, 속죄관, 세례관 등을 살펴보자.

나는 에덴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올릿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다윈에 대해 읽어 봤소? 그 이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 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오...그러나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어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오.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오.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세 가지 주요한 논점에서는 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영원이 기간과는 상관없다; (2)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있지 않다; (3)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영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시대 사람들이 이 중 둘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즉 연옥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학을 영적이 아닌 것으로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영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인임을 보장해 준다.

• 그리스어 신약성경 수정 본문의 또 다른 저자인 웨스트코트의 창세기관, 기적관, 기도관 등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세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인간적으로 말해서, ‘태양의 떠오름’에 대해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당신이 느낀다면, 모세와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분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셨어야만 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사실 나는 시(詩)가 역사보다 수 천 배나 더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어 본 적이 없으나 직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했다.

나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몇몇 다른 감독들과 의논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공석에배에서 교회 전체와는 별개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러나 개인기도 때에는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 NIV의 주 편집자 팔머(Edwin Palmer)는 자신이 편집한 NIV가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NIV는 현재 몇몇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큰 오류, 즉 ‘거듭남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개념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한 구절은 사실상 성경에 거의 없다.

•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중보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NASB의 창시자는 「동서양 저널」(East-West Journal)이 ‘새 시대 운동과 동서양의 합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칭했던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새 역본의 편집자는 자신이 변경시킨 믿음의 신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변화들 - 즉 자신이 변경시킨 것들 - 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반드시 새로운 신학의 보물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 ‘새’ 역본 편집자들이 그리스어 어원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참고 사전은 히틀러의 추종자(루돌프 키텔)가 집필한 것으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에 관련된 소송에 회부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NIV 편집위원회의 몰렌코트 박사(Dr. Virginia Mollencott)는 “동성연애(Lesbianism)는 항상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고 자랑스레 말한다(1991년 6월호 성공회 「위트니스지」). 그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 저술한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라는 책은 성경이 ‘매춘’, ‘폭력에 의한 갱들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을 책망하며,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실 그녀의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NIV에 반영되어 있다.

결국 ‘의(義)를 ‘부(副)로, ‘십자가’를 ‘왕관’으로, ‘새로운 창조’를 ‘모방’으로 대치시킨 ‘새로운’ 역본들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태동되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 역본들의 사악한 열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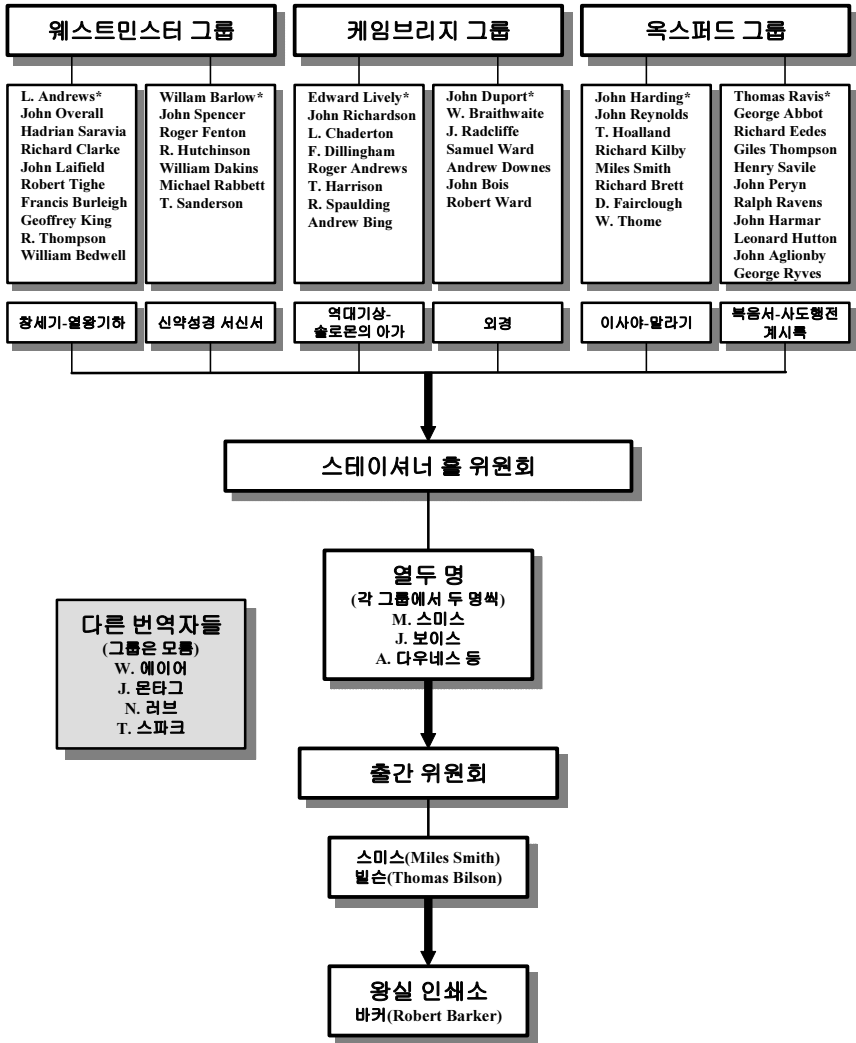
### 3. 킹제임스 성경 번역 방법의 우수성

#### <3.1> KJB의 번역 방법

KJB를 번역한 번역자들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취한 번역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팀워크를 이루어 번역을 했다. 57명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번역했고 각 그룹은 두 조로 나뉘었으며 한 조의 인원은 대략 7명 정도였다.

- (1) 웨스트민스터 그룹(2개조) ; (2) 옥스퍼드 그룹(2개조) ; (3) 케임브리지 그룹(2개조)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KJB의 경우 각각의 번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는 것이다. 즉 57명이 모두 자기 스스로 맡은 것을 번역해야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역본의 경우 편집위원 중에서 소위 실력이 있다는 몇몇 학자들이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 주거나 혹은 기껏해야 교정을 보거나 다른 역본들과 비교하거나 하는 등 사소한 일을 한다.

그러나 KJB의 경우에는 57명의 역자가 다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에서 스스로 번역을 해야 했으며 그중 어떤 이들은 번역을 끝내기도 전에 죽기도 했으나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남은 50여 명의 학자들이 그 작업을 인수하여 스스로 번역을 했다.

한편 이들은 팀워크로 일을 하면서 한두 사람의 사사로운 의견을 배제시키고 오직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신실하게 옮겼다. 팀워크를 통한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첫째 조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12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최종적인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이 조에 속한 7명 모두가 각각 12권 모두를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본문을 최소한 7번 읽어야 함).
- (2) 그 뒤 7명이 모여서 검토했다(최소한 1번을 같이 읽음).
- (3) 그 뒤 다른 조로 보냈다(나머지 다섯 조에서 최소한 5번을 함께 읽음).
- (4) 끝으로 각 조에서 두 명씩 선출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했다(이 과정에서 최소한 2번을 읽음).

이런 철저한 과정을 거쳐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원어로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검토하고 읽고 번역한 결과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즉 1611년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과연 현대 역본 편집자들 중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하여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또한 그들이 과연 자기들이 만든 역본을 KJB의 역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14번 이상 읽고 검토했던 말인가?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NIV 등은 컴퓨터 시대에 출간되었지만 나오기가 무섭게 개정되고 있다.

마차에 원고를 싣고 다니며, 직접 손에 펜을 잡고 잉크로 글을 썼던 17세기 초반에 나온 성경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직접 번역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KJB 역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단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한다.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KJB로 번역될 때까지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으며,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성경으로 읽고 인정하셨다.

### 〈3.2〉 KJB의 문자적 일치 및 형식적 일치 기법

KJB 번역자들은 ‘문자적 일치 방법’(Verbal equivalence method)과 ‘형식적 일치 기법’(Formal equivalence technique)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 및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원어의 형식과 단어 자체가 거의 그대로 영어로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역으로 번역하게 되면 원래의 글로 되돌아가게 된다. 물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법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어와 원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 및 형식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디모테전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There is one God.

우리말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러면 개역성경 번역을 영어로 역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God is one person.

이제 원래의 영어 구절과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특히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고 만다. 즉,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 및 형식의 일치를 이루는 번역이 될까? 그런 번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라(흠정역).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지 않으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라. 그러면 이 같은 번역이 옳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마귀들이 무엇을 믿고 떠는가? 개역 성경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떠는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는 것인가? 그들이 떠는 이유는 자기들을 심판하실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어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기록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한편 이 구절에 나오는 ‘한’(one)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I and my Father are one)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one)로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에서 문자 및 형식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KJB 역자들은 바로 이 같은 문자 및 형식의 일치 기법을 준수하여 원어에서 영어로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번역했다.

### 〈3.3〉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동적 일치 기법

한편 현대 역본 편집자들은 대개 문자 및 형식의 일치를 무시하고 소위 ‘동적 일치 기법’(Dynamic equivalence technique)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했다.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이는, 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상관이 없이 번역을 하게 된다. 특히 소설을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어 뜻만을 전하는 번역을 우리는 ‘의역’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리빙바이블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동적 일치 기법’의 창시자는 누구일까? 이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바로 사탄 마귀였다. 동적 일치 기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1) 변경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것을 변개시켜 이렇게 말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 이것이 바로 동적 일치 기법의 폐해이다.

#### (3.3.2) 추가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것에다 자기의 말을 추가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최근에 이같이 사악한 ‘동적 일치 기법’을 성경 번역에 도입한 장본인은 니다(Eugene Nida)이다. 그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미국성서공회, 연합성서공회 등을 위해 일해 왔으며 온 세상 속으로 이 기법을 파급시킨 장본인이다. 그의 노력을 통해 1975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공식적으로 ‘동적 일치 기법’을 채택했고 그 뒤 1978년에 나온 NIV도 이 기법을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연합성서공회는 이 기법을 이용한 성경만을 출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동적 일치 기법’을 이용하여 말씀을 변개시키고 가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 (3.3.3) 추측

현대 역본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 중 하나는 추측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들의 추측 번역 방법을 잘 보여 준다. KJB와 ‘전통 마소라 본문’은 창세기 4장 8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KJB).

그런데 NIV는 이렇게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로 가자...(NIV)

히브리어 본문에는 NIV의 밑줄 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NIV 편집자 콜렌버거는 1979년에 발간된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 성경에다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각주를 달았다.

여기 있는 히브리 본문과 번역은 참고문헌 1번에 있는 여러 가지 초기 번역들을 기초로 해서 추측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신학이나 신념에 맞게 추측하여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고 BHS의 경우 구약에서만 무려 20,000~30,000군데를 수정하였다.

### (3.4) 읽기 쉬운 성경

많은 광고들이 “KJB는 확실치 않으며 혼동을 일으키고, 대개의 경우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킴킴한 혼동의 구름을 만들어 낸다. 반면에 그들은 NIV의 ‘읽기 쉬운 현대 영어’를 극구 칭찬한다. 흑색선전을 통해 단순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 제작된 전면 칼라 광고지들은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압하고 있다.

그러나 플레쉬-킨케이드(Flesch-Kincaid) 연구사의 영어 등급 수준 지표는 새 역본들의 참 색깔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 주며 이 문제의 흑과 백을 엄격하게 보여 준다. 26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KJB는 이 중 23 가지에서 새 역본들보다 더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등급 수준} = (0.39 \times \text{문장당 평균 단어 수}) + (11.8 \times \text{단어당 평균음절수}) - 15.59$$

물론 등급 수준이 낮을수록 문장이 쉽게 쓰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먼저 신구약성경의 첫째 책과 마지막 책의 첫 장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 경우에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들과 마침표로 끝나는 모든 구절을 문장으로 간주했다.

다음의 표가 보여 주듯이 결과는 KJB가 다른 어떤 현대 역본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KJB의 등급인 5.8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KJB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NIV의 8.4는 미국 학제의 8-9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야 NIV를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읽힘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세 종류의 책들(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에서 한 장씩을 뽑아 더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역시 KJB가 새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쉽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1〉

	KJB	NIV	NASB	TEV	NKJV
창세기 1장	4.4	5.1	4.7	5.1	5.2
말라기 1장	4.6	4.8	5.1	5.4	4.6
마태복음 1장	6.7	16.4	6.8	11.8	10.3
계시록 1장	7.5	7.1	7.7	6.2	7.7
등급수준평균	5.8	8.4	6.1	7.2	6.9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2〉

	KJB	NIV	NASB	GNMM	NKJV
요1:1-21	3.6	3.6	4.2	5.9	3.9
갈1:1-21	8.6	9.8	10.4	6.7	8.9
약1:1-21	5.7	6.5	7.0	6.0	6.4

그렇다면 KJB가 다른 현대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KJB가 한 개나 두 개의 음절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새로운 역본들은 여러 개의 음절로 된 복잡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역본들의 ‘교집 세며, 교만한’ 어휘들은 단순한 성도들과 죄인들로부터 구원의 소망을 숨겨 버린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고후3:12)

단순하며 분명한 성경 구절에서 NASB는 낱빛의 검푸른 단어들을 사용하며,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혼동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생색을 내는 듯한 어휘들을 사용한다.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정확성과 단순성을 위해 KJB를 읽어야만 할 것이다. 새 역본을 추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세뇌시켜 ‘거짓말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느 성경이 더 읽기 쉬운지 스스로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만 한다.

### 〈3.5〉 외우기 쉬운 성경

이번에는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경 구절이 적당한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119:11).

성령님의 칼인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한 문장 구조와 한 음절로 된 단어들은 이같이 암송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막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래서 새 역본들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한 공격용 칼이 매우 어려운 단어들의 칼집 안에 갇혀 있다. 대개의 경우 새 역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할 때마다 KJB보다 두 배나 많은 단어나 음절을 사용한다. 다음은 KJB와 NASB를 간략하게 비교한 것이다.

〈KJB와 NASB의 음절 수 비교〉

NASB		KJB
Question those who have heard what I spoke to them (10 단어/11 음절)	요18:21	Ask them which heard me. (5 단어/5 음절)
Do not be afraid any longer but go on speaking (10 단어/11 음절)	행18:9	Be not afraid but speak (5 단어/6 음절)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8 단어/9 음절)	요21:5	have ye any meat (4 단어/5 음절)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sick (12 단어/ 14 음절)	약5:15	the prayer of faith shall save the sick (8 단어/8 음절)
flashes of lighting and sounds and peals of thunder (9 단어/12 음절)	계4:5	lightings, and thunderings, and voices (5 단어/9 음절)
angel who had seven plagues which are the last (9 단어/11 음절)	계15:1	angels having the seven last plagues (6 단어/9 음절)
총 58 단어/71 음절		총 33 단어/42 음절

이 표가 잘 보여 주듯이 NASB는 KJB에 비해 약 2 배나 많은 음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역본들의 문장 구조를 ‘미로’(迷路)라고 부른다.

“NIV는 참 읽기 쉽다.”는 광고 역시 마귀의 계략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NIV의 복잡한 문장 구조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외우거나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된다. 다음의 표는 KJB와 NIV의 음절 수를 비교해서 보여 준다.

NIV의 경우 무려 음절 수가 KJB의 3배나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본 글에서는 지면이 부족하여 성경 전체를 비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NIV의 어휘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 〈KJB와 NIV의 음절 수 비교〉

	NIV	KJB
출32:6; 고전10:7	indulge in revery (6)	rose up to play (4)
레14:2, 57	regulations for infectious skin diseases and mildew(15)	law of leprosy (5)
레11:30	skink (1)	snail (1)
고후2:2	conscripted (3)	told (1)
롬1:28	think it worthwhile (4)	like (1)
엡4:16	supporting ligament (6)	joint (1)
눅10:35	reimburse (3)	repay (2)
눅11:26	final condition (5)	last state (2)
총 음절 수	43	17

### 〈3.6〉 KJB 영어의 특징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전 세계적인 책으로 만드셨는데 사실 이 같은 계획은 2000년대에 새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대영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함에 따라 지난 400년간 KJB의 단어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호주,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에 영국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영국의 권력 및 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영문학을 배우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외국 학생의 영어는 미국식 영어가 아니고 영국 본토의 런던 토박이 영어이다.

사전 찾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친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KJB 안에 있는 8,000여 단어들로 구성된 영어야말로 새 역본들의 영어보다 훨씬 더 단순하며 정확하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3장 24절의 '가슴 옷'을 뜻하는 'stomacher'는 새 역본들이 번역한 대로 허리띠를 뜻하는 'belt'가 아니며 15~17 세기경의 여자들이 가슴에 입었던 옷이다. 새 역본들에 있는 보다 '단순한' 단어들은 사실상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거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새 역본들은 다니엘서 3장 7절에서도 KJB를 향상시키지 못할뿐더러 같은 구절에서 KJB가 사용한 매우 간단한 단어인 하프(harp)를 훨씬 더 어려운 단어인 '지더'(zither)로 바꾸어 놓았다.

보기에 친숙한 것 같지 않은 KJB의 단어들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1. 좋은 영어 사전을 사용하라. 어떤 단어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알려면 「Oxford Unabridged, The Glossary of the Cambridge Interleaved Bible」

혹은 1828년 판 「The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oah Webster」 등을 사용하라.

2. 성경에 포함된 사전을 사용하라. 특히 한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날 때 앞 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어를 처리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삼상9:1-11을 참고하라. 그분께서는 여전히 고어들을 그대로 두시되 성경에서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신다.

4. KJB에 있는 Thee나 Thou 등은 1611년의 영어가 아니고 성경 언어임을 기억하라. KJB가 번역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던 위의 단수 단어들은 이미 당신을 뜻하는 You로 대체되어 있었다. Thee, Thou, Thy, Ye를 You나 Your로 바꾸면 단수 (thee, thou, thy)와 복수(ye) 사이의 중대한 영적 차이를 전달할 수가 없다(예를 들어 요3:7 등과 같은 구절). 또 하나님, 예수님을 You로 부를 수는 없기에 존칭의 의미를 갖는 Thou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 4.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한마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절대 무오한 진리 - 이것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면 신학이 됨 - 를 담고 있는 책으로 오직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재는 척도가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이 척도가 곧은가 곧지 않은가에 따라 믿는 바가 달라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단들의 경우처럼 잘못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KJB 성경의 신학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여 주려 하며, 특히 본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신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많은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려 한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KJB와 현대 역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 영어 본문도 함께 기록했다.

##### 〈4.1〉 하나님론

KJB(요일5:7)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 and these three are one.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성경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구절은 없지만 오직 KJB만 이 구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KJB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4.2〉 그리스도론

KJB(갈3:17)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u>그리스도 안에서</u>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in Christ,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et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KJB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도 계셨음을 보여 주며 또한 구약시대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나 NIV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다.	

KJB(요3:13)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u>하늘에 있는</u>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KJB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이나 계신 분임을 보여 주나 NIV의 편집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밑줄 친 부분을 제거하고 있다.	

KJB(롬14:10-12)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u> 서리라...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u> 회계 보고를 하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하나님의 심판석 앞에</u> 서게 되리라...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u> 회계 보고를 하리라.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u>judgment seat of Christ</u>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u>to God</u> .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u>God's judgment seat</u>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u>to God</u> .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KJB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명백하게 보여 주지만 NIV는 마음대로 성경을 고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4.2〉 그리스도론 계속

KJB(요일4:3)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누가 이단인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들이 아닌가? 그런데 NIV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KJB(눅4:8)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u>사탄</u> <u>안</u> ,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기록된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Get thee behind me, Satan: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사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KJB(요1:18)	NASB,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설명하셨느니라.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u>the only begotten Son</u> ,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u>the only begotten God</u> ,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NASB 등에 따르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열등한 신'이 되고 만다. 그런데 KJB는 예수님이 독생자 즉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 〈4.2〉 그리스도론 계속

KJB(눅2:33)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And Joseph and his mother marvel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him.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 〈4.3〉 교회론

KJB(계2:15)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So hast thou also them that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which thing I hate.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니콜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회중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일반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계급주의 및 교권주의 사상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 〈4.4〉 성경론

KJB(삼하21:19)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Elhanan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Elhanan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Goliath the Gittite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이다. 그런데 NIV 등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고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4.4〉 성경론 계속

KJB(막1:2-3)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p>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p>	<p>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p>
<p>As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thy face,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p>	<p>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p>
<p>이 구절은 말3:1과 사40:3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는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며 이를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p>	

KJB(막15:28)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p>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p>	<p>삭 제</p>
<p>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p>	<p>삭 제</p>
<p>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NIV 등은 이런 예언의 성취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p>	

KJB(벧전2:2)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p>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p>	<p>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할 지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p>
<p>As newborn bab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e may grow thereby:</p>	<p>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p>
<p>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 무엇인가? KJB는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보여 주지만 NIV는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구원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p>	

#### 〈4.5〉 구원론

KJB(요3:15)	NASB,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that whoever believes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NASB의 편집자들은 아무 것이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KJB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KJB(계21:24)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오리라.
And the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 shall walk in the light of it: and the kings of the earth do bring their glory and honour into it.	The nations will walk by its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splendor into it.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걷는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뿐이다. 그런데 NIV 등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걷는다고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구원받는 것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 〈4.6〉 속죄론

KJB(골1:14)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KJB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 주나 NIV는 이런 사실을 숨긴다. 현대인의 성경, 리빙바이블 등의 현대 역본들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여 '피 없는 성경'이 되고 말았다.	



#### 〈4.6〉 속죄론 계속

KJB(약5:16)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KJB는 성도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NIV는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해성사를 지지하고 있다.	

#### 〈4.7〉 종말론

KJB(마25:13)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u>사람의 아들이 오는</u>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the Son of man cometh.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그 날과 그 시각을 수식해 주는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겠는가? NIV는 결코 쉽게 번역되지 않았으며 단지 사람들을 혼동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	

#### 〈4.8〉 심판론

KJB(골3:6)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오직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임한다. 또 한 번 KJB는 현대 역본보다 훨씬 정확하다.	

#### 〈4.9〉 부활론

KJB(막12:23)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when they shall rise, whose wife shall she be of them? for the seven had her to wife.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NIV는 부활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한다.	

#### 〈4.10〉 지옥론

KJB(막9:44, 46)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삭제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삭제
NIV의 편집자들은 지옥을 두려워하므로 지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곳 외에도 신구약에서 지옥을 지칭하는 곳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음부, 스올 등으로 대체시켜 버렸다.	

#### 〈4.11〉 천국론

KJB(히10:34)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For ye had compassion of me in my bonds, and took joyfully the spoiling of your goods, knowing in yourselves that ye have in heaven a better and an enduring substance.	You sympathized with those in prison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NIV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워 버리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것은 참으로 영구한 실체가 아니지만 그는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알았다.	

#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1611년에 탄생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심하게 흔들려는 비평가들의 최후 배수진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개정(改正)이라는 것으로 시비를 삼아 장난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 곧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사본학적 증거와 성령님께서 이루신 명백한 증거들을 들이대며 자기들의 빈약한 주장을 뒤엎어 버리자 궁극적인 패배를 맞보지 않으려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 요새로 도피한다. 일단 이 요새 안에 들어서면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여러분은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십니까? 1611년 판입니까, 1629년 판입니까? 아니면 1769년 판입니까?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하면 그들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재빨리 도망쳐 버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들의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걸어 닫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미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리건 박사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했다. 다시 말해 리건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시키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가 발견한 것을 보다 개선시키려 애써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의 허가를 얻어 그의 소책자 전편을 여기에 소개한다.

##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초기개정 신화〉

마귀가 처음 이브에게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고후4:2)을 가르쳐 준 이래로 사람들은 줄곧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가인으로부터 발람에 이르기까지, 여후디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세 암흑시대 신학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인본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부패한 손이 노리는 제1의 표적물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첨가, 삭제,

그리고 바뀌치기가 바로 그것이다. 아담 시대로부터 컴퓨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략은 변치 않고 동일하며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들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귀의 공략 방법 중 하나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곧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그 공격의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네 차례나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개정 성경들에 대한 반대론은 타당치 않으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꾸며 낸 이야기 즉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신화는 1881년에 나온 영국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의 최신 번역판 성경을 팔려는 근본주의 학자들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부활되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본 자료의 목적은 성경 보존을 부인하는 자들을 깨우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에 답변할 때 늘 문제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비평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대답해야만 하는가?

만약 영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천박한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고자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느 곳에서나 공정성(公正性)이 득세하기 마련이며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다. 잠언 26장 4-5절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그것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에 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공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미련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런 질문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답이 될 것이다. 가령,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아무개가 이혼을 했으므로 성경은 무오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누가 해 온다면 이 경우에 여러분은 침묵이 최상의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실 여부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문제나 질문이 제기될 경우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성경 공격자는 자기의 기만 속에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우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나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둘째 종류의 문제라고 믿는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네 차례의 중대한 개정 작업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영어 본문에 기초해서 진전되고 있는 성경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것은 실로 그릇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독자께서는 본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 1. 1611년 당시의 인쇄술

만일 하나님께서 주후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면(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무오류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번역자들의 필기 자료일까? 혹은 인쇄공들에게 보낸 교정쇄일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이러한 종이 뭉치들은 이미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도 근거를 잃고 만다.

어떤 분은 인쇄기에서 맨 처음 찍혀 나온 책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책 또한 분명히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당시의 인쇄 작업 방식에 따라 인쇄되었다면 맨 처음에 인쇄된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쇄할 때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 남은 것들뿐이며, 사실 이렇게 남아 있는 책들은 다른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표준으로서 종종 지목되곤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책들이 표준이 될까? 초판을 찍어 냈던 초기의 인쇄공들이 인쇄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보존된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한 권위는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다. 인쇄공들의 실수로 틀린 데나 고친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망쳐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늘 틀리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성경 본문을 보존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1611년 당시 인쇄공들의 고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하기 161년 전인 1450년경에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할 때 인쇄공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 비해 거의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인쇄는 여전히 느리고 어려웠다. 모든 활자를 한 번에 한 글자씩 손으로 조판하였으니 -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글자씩 조판했음 - 어떤 책에서도 인쇄공에 의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첫 판을 인쇄했던 인쇄공들은 참조할 수 있는 이전 판조차 없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여러 가지 인쇄상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은 결코 현대 성경 역본 편집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본문 교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단지 단순한 인쇄상의 실수들로서 심지어 현대화된 인쇄기의 이점을 모두 살려 만든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에서조차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쇄상의 실수였다. 비록 이런 실수들이 성경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기 판에서

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정정(訂定)해야 했다.

현존하는 두 개의 킹제임스 성경 인쇄 원본은 1611년 당시에 인쇄상의 실수 없이 성경을 인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 두 판본들은 옥스퍼드에서 인쇄되었고 둘 다 같은 해인 1611년에 인쇄되었다. 즉 같은 해에 두 번 출판되었다. 동일한 인쇄공들이 일을 했고 동일한 인쇄기로 인쇄를 했다. 그러나 이 두 판본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 본문들 간에 대략 100여 개의 인쇄상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어 온 지난 400여 년 동안 소위 네 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그 결과 본문상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약 400여 군데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억측을 부린다. 분명히 학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무엇인가가 심히 부패되어 있다! 자, 이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상의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자.

## 2. 1611년 판 KJB가 네 차례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여기서 언급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명한 성경학자 스크리브너(F.H.A. Scrivener)가 「권위역 영어 성경(1611), 그 이후의 재판(再版)과 현대판들」(*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1611), Its Subsequent Reprints and Modern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매우 학자티를 내는 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884년에 이 책을 출판한 스크리브너가 1881년도의 영어개역성경을 만든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책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스크리브너 책의 첫 부분에 들어 있는 상세한 기록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소위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두 번이나 대거 개정했다는 것은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27년 안에 일어났다. 독자께서 아셔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영어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케임브리지에서 인쇄된 1629년 판 킹제임스 성경이 첫째 개정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개정'(revision)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성껏 고친 '교정'(correction)이었을 뿐이다. 1629년 판은 킹제임스 성경 원판이 번역된 지 18년 후에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맡았던 워드 박사(Dr. Samuel Ward)와 보이스 박사(Dr. John Bois) 두 사람이 그 판의 인쇄에 직접 참여했다. 원래 번역을 맡았던 이 두 사람보다 더 초기의 실수들을 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 다시 케임브리지에서 소위 '둘째 개정'이라 부르는 또 다른 판이 나왔다. 그때까지 워드와 보이스 박사 모두 살아 있었지만 이때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1881년의 영어개역성경 편집에 직접 참여했던 스크리브너조차 케임브리지 인쇄공들이 한

것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었을 때 인쇄공들의 실수로 빠진 단어나 절을 원래대로 하고 명백한 인쇄상의 실수들을 교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이다.

뒤에 자세히 기술하게 되겠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약 400 여 군데 교정된 것 중 72%가 원판이 인쇄된 지 27년 만인 1638년의 케임브리지 판에서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소위 ‘처음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화하기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위 ‘마지막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도 철자의 표준화에 필요한 두 단계로 구성된 또 다른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이 두 단계 교정 공정의 판들 중 처음 것은 1762년에 시작되어 7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이 되었고 둘째 것은 1769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본주의 학자들이 교정판에 번호를 매길 때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둘째 공정에서는 본문 교정이 거의 필요치 않았다. 소위 ‘수천 개의 변화’(changes)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확립된 정확한 본문에다 철자가 변함에 따른 형태 맞추기 작업에 불과했다. 즉 철자상의 변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철자상의 변화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는 것이 한낱 기만행위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많은 적든 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런 변화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3.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인쇄 원본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가정해 보자.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 상자로 가서 유리를 통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들여다볼 것이다. 비록 책장을 넘겨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성경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안의 단어들 거의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쓰여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관람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611년 원판이 인쇄된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매우 교활한 책략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차이들은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증거를 조사해 보도록 하자.

● 인쇄상의 변화들

엄밀한 검토를 위해 변화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인쇄상의 변화들’, ‘철자상의 변화들’, ‘본문상의 변화들’.

먼저 ‘인쇄상의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활자체는 고딕 활자체였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의 활자체는 아마도 로마체나 타임즈 로마체일 것이다. 고딕체는 때때로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독일체라고도 부른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쇄기가 발명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고딕체는 중세기에 손으로 작성한 필사본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로마체는 꽤 일찍 발명되기는 했지만 유럽 전역에서 가장 유력한 인쇄체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고딕체는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 1611년 당시 영국에서는 로마체가 이미 대중화되었고 곧 고딕체를 앞지를 전망이다. 그렇지만 원판 인쇄공들은 고딕체가 로마체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 능력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딕체를 선택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체로 바꾸어야 했고 마침내 1612년에 로마체를 사용한 첫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다. 그로부터 몇 년 내에 인쇄된 성경들은 모두 로마체를 사용했다. 활자체의 변화는 글씨의 형태나 크기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성경의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그렇지만 고딕체에 친숙하지 못한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고 딕 체	로 마 체
<p><i>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b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i></p>	<p>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p>

형태상의 일반적인 몇몇 변화 외에도 몇 개의 특별한 글자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딕체 s는 대문자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어의 끝에 사용될 때 마치 로마체의 s처럼 보여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also는 alfo가 되고, set는 fet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독일체 v와 u에서 발견된다.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지만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w를 ‘더블브 이라 하지 않고 ‘더블유’라고 부르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익숙해지면 괜찮다. 따라서 1611년 판을 보면 love는 loue로, us는 vs로, 그리고 ever는 euer로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이다.

또 다른 예로, 고딕체 j는 i처럼 보인다. 그래서 Jesus(예수)는 Iefus(중간의 s가 f로 변했음에 유의하라)가 되고, joy는 ioy가 된다. 심지어 고딕체 d의 굽은 종선이 뒤에서 원으로 굴러지면 그리스어 델타( $\delta$ )와 비슷하게 된다. 이런 철자상의 변화들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 안고 있는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본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다. 이것들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두려고 사용하는 연막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 ● 철자상의 변화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정서법(orthography) 또는 철자상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현대 영어가 1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11년경에는 현대 영어의 기본 단어들과 문법적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철자는 그 당시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다. 사실 1600년대의 철자는 매우 변덕스러웠다. 정확한 철자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잘 확립된 어떤 철자 규정 같은 것도 없었다. 어떤 작가들은 종종 같은 책에서, 때로는 같은 페이지에서조차도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1600년대가 철자 표기의 천국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단어들의 철자가 정해진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철자도 표준화되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의 인쇄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철자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철자의 차이점을 목록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가지 특징은 상당히 공통성을 띠고 있다. 부가적으로 들어간 e들은 종종 feare, darke 그리고 beare 같이 단어들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모음은 오늘날보다도 더 일반적이었다. 여러분은 me, be 그리고 moved 대신에 mee, bee 그리고 mooued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자음은 더욱 흔한 것이었다. ranne, euill 그리고 fitarres는 오늘날의 철자법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될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것들은 오늘날 철자법에 따르자면, ran, evil 그리고 stars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쇄상의 그리고 철자상의 변화들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식으로도 결코 본문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솔직히 현시대에 천주교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들에서 공공연하게 만들거나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본문 변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다.

## ● 본문상의 변화들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개정의 예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다. 이제부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현재 발간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 사이에 실제로 본문 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물론 이 두 개의 본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개정에 의한 변화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개 초기의 인쇄 실수들을 정정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사실임을 세 가지로 입증해 보일 수 있다: (1) 변화들의 특성, (2) 성경 전체를 통한 변화들의 빈도, (3) 이런 변화들이 생긴 때.

먼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던 때부터 생겨난 변화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1611년 판 본문으로부터의 변화들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은 이런 변화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인쇄상의 실수였다. 그것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의 해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본문의 변화가 아니다. 처음 인쇄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은 때때로 뒤집어졌다. 때때로 복수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가 복수로 쓰이기도 했다. 때로는 어떤 단어 대신에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가 대신 들어가 잘못 쓰이기도 했다. 드물게는 한 단어 혹은 심지어 한 절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략된 것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며 현대 번역판 성경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 차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진실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과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정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스크리브너는 자신의 책의 부록에서 '1611년 KJB 판'과 '후기 인쇄본들' 간의 변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나는 다음의 표에 이렇게 정정된 것들의 예를 실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들은 스크리브너의 저서의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첫째 정정 사항을 연속적으로 취한 것이다. 먼저 '1611년 원본'의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본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음 정정된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은 지난 375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생긴 변화들 중 5%를 보았다. 보아서 금방 판단하겠지만 이것들은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alterations)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사실상 인쇄상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고, 그래서 현대판 성경들의 본문 변경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다음 표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면 심각한 교리적 차이를 지닌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스크리브너의 부록 전체를 살펴볼 때 그것이야말로 그가 교리의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변경 사항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Seek God)이라고 해야 할 곳에서 '선(善)을 찾는'(Seek good)이라고 한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시편 69편 32절을 말하고 있다(표의 10번). 그러나 이것조차도 정말로 인쇄상의 실수였음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로, good과 God의 철자가 유사하다는 점은 피곤한 식자공이 교정쇄를 잘못 읽어 본문에 틀린 단어를 찍을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로 이

실수는 너무도 명백해서 원판이 인쇄된 지 6년 후인 그리고 소위 ‘첫째 개정’이라 불리는 것이 나오기도 전인 1617년에 이미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여러 차례의 주요한 개정 작업이 있었다는 신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남아 있다. 변화들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인쇄상의 실수들이었음을 보여 주며 또한 변화의 빈도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1611년 판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개정 사항이 마치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개정 사항과 동등한 것인 양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본문의 ‘수천 개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활자체 또는 철자상의 변화였다. 그 밖의 것들은 분명히 지루했던 초기의 인쇄 공정에 따라 생긴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다.

〈1611년 판과 현재 출간되는 KJB 비교〉

번호	1611년 원본 본문	현재 본문	년도
1	this thing	this thing also	1638
2	shalt have remained	ye shall have remained	1762
3	Achzib, nor Helbath, nor Aphik	of Achzib, nor of Helbath, nor of Aphik	1762
4	requite good	requite me good	1629
5	this book of the Covenant	the book of this covenant	1629
6	chief rulers	chief ruler	1629
7	And Parbar	At Parbar	1638
8	For this cause	And for this cause	1638
9	For the King had appointed	for so the king had appointed	1629
10	Seek good	seek God	1617
11	The cormorant	But the cormorant	1629
12	returned	turned	1769
13	a fiery furnace	a burning fiery furnace	1638
14	The crowned	Thy crowned	1629
15	thy right doeth	thy right hand doeth	1613
16	the wayes side	the way side	1743
17	which was a Jew	which was a Jewess	1629
18	the city	the city of the Damascenes	1629
19	now and ever	both now and ever	1638
20	which was of our father's	which was our fathers	1616

위에 제시한 목록의 표본은 스크리브너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변형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한 학자가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킹제임스 성경 간에는 단지 400여 개의

차이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또한 이런 차이점마저도 인쇄상의 실수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1611년에 인쇄된 두 개의 옥스퍼드 판 사이에도 인쇄상의 실수로 서로 100 여 개의 차이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성경이 대략 1,200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1611년 판과 현재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판과 비교하면 1장당 평균 변형은 0.33개로서 이는 3장당 1개꼴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것들은 ‘chief rulers’를 ‘chief ruler’로 ‘And Parbar’를 ‘At Parbar’로 고치는 것과 같은 변화들이었다.

이러한 변형들이 단순히 인쇄상의 실수들을 고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것들을 인쇄한 후 매우 빠른 시기에 모두 정정했다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상의 특성과 빈도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 400여 개의 정정 사항 중 대다수는 원판이 인쇄되고 난 후 몇 년 내에 이루어졌다. 그 예로 위의 수정 사항 목록을 다시 한 번 보기 바란다. 20개의 정정 사항 중 1 개는 1613년에, 또 1 개는 1616년에, 또 1617년에, 8 개는 1629년에, 5 개는 1638년에, 1 개는 1743년에, 2 개는 1762년에, 1 개는 1769년에 정정되었다. 따라서 20 개의 정정 사항 중 16 개 즉 80%가 1611년의 초판 인쇄 후 27년 이내에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이란 것은 결코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크리브너 책의 부록의 다른 페이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 정정 사항의 72%가 1638년경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는 명백히 인쇄상의 실수에 대한 것뿐이다. 본문 변화의 빈도는 세 페이지당 한 번꼴로 드문드문 일어났으며 본문의 인쇄상 실수들의 75%가 처음 인쇄된 지 27년 이내에 정정되었다.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은 지난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언어를 현대화시킨다는 의미의 진정한 개정 작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개정판이 있었다면, 초기 식자 공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 판본이 있을 뿐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 -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권위는 결코 현존하는 초판 원본에 있지 않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에 대한 권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 입씨름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 봐 자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역본 성경의 교정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다. 우리의 권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결코 현대 역본 성경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근본주의 집단 내에 맴돌고 있는 그릇된 주장 즉 학자들이 부풀려 놓은 거짓 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 신화는 다름이 아니라 뉴킹제임스 역본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역본들이 1611년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진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개정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곧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본문상의 개정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네 차례의 주요 개정 작업을 거쳐 본문을 바꾼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B)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말씀이 있다.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위치	개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길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7~8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빼고 6절을 돌로 나누어 6절 후반부를 7절에 넣었음.)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공동번역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